

번역하는 이의 영원한 딜레마, 오역

황보석

약력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전문번역가로 활동중이다. 역서로 《페이터의 산문》 《공중곡예사》 《달의 궁전》 《백년보다 긴 하루》 《굿나잇》 《모레》 《나는 홀리아 아주머니와 결혼했다》 등 120여 권이 있다. 저서로는 《기초프랑스어》 《알기쉬운 프랑스어 회화》 등이 있다.

번역자는 때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서 딜레마에 빠져야 한다.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체로 한 놈은 잡고 한 놈은 도망치게(?) 놓아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두 놈 중에서 어느 놈이 더 실하는 거다. 놓친 고기 커 보인다고 이 놈을 잡으려면 저 놈이 더 커 보이고, 저 놈을 잡으려면 이 놈이 더 커 보이고….

이 문제는 결국 직역이나 의역이나, 즉 단어 대 단어, 문장 대 문장의 번역이나, 아니면 뉘앙스 대 뉘앙스의 번역이나 하는 문제로 귀착될 경우가 많다. 원문의 뜻을 끝이끝대로 살리려다 보면 유치하거나 생경스러운 문장이 되기 일쑤고, 옛장수 마음대로(?) 의역을 하려다 보면 이렇게까지 잡아틀어도 될까 해서 속으로 쾅기는 구석이 없지 않다. 그래서 직역이나 의역이나를 놓고 따지는 문제는 말은 쉬워도 직접 번역을 하는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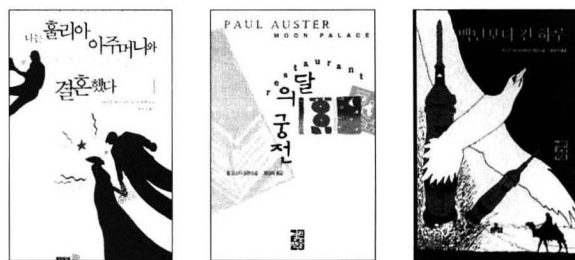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번역 문학 작품들이 일부 고급 독자들에게 외면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어 대 단어 식의 치졸한 번역과 어색한 말투, 운을 맞추지 못하는 문장 같은 것들 때문이다. 결국, 제대로 된 번역문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전인수격인 해석인지도 모르지만, 직역보다는 의역으로 가는 것이 옳을 듯 싶다.

또 것처럼 의역을 하다 보면 번역자로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것은 특히 실생활에서는 흔히 쓰

이면서도 막상 번역을 할 때는 원문이라는 틀에 매여 잘 떠오르지 않는 어구를 찾아냈을 때 그러하다. 예를 들어 원문에 “After my first novel ended in failure…”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자. 이때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내 첫번째 소설이 실패로 돌아간 뒤로”이다. 그러나 ‘실패로’와 ‘뒤로’에서 ‘로’가 겹쳐 영 개운치가 못하다. 그렇다고 ‘실패한 뒤로’라고 쓰자면 왠지 이빨 빠진 문장인 듯한 느낌이 들고, 하지만 이 문장을 붙들고 얼마쯤 머리를 굴리다 보면 ‘내 첫번째 소설이 죽을 쏜 뒤로’라는 정도의 표현이 떠오를 것이고 그럴 때마다 번역자는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기왕 하는 일 가능한 한 많은 즐거움을 맛볼수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닌가!

번역에서 또 한 가지 요구되는 점은 두 개 이상의 수식어를 하나의 수식어로 축약하거나 공감각적인 사고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he said very coquettish voice that…”이라는 원문이 있다 치자. 이 예문을 “그 여자가 매우 교태로운 목소리로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학교 수준의 번역이고 제대로 된 번역자라면 적어도 ‘간드러진’ 목소리 정도로는 옮겨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란’ 목소리라고 번역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고, 오역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다.

의미와 느낌을 정확히 통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단어를 그대로 옮기는 것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말은 서양인들의 말보다 어감의 표현에 있어서 훨씬 더 발달된, 훨씬 더 정교한 말이다. 따라서 원문에 여러 개의 수식어들이 늘어 놓여 있더라도 그 의미를 곰곰이 헤아려 보면 한 마디로 뭉뚱그리는 말을 찾아낼 수 있을 때가 많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서양인들의 말보다 훨씬 더 우수하므로.



번역을 하다 흔히 범하게 되는 실수 중 하나는 문법에 얽매어 맥을 놓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관계대명사 절이 들어 있는 복문의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외국어와 우리말의 구조와 언어습관이 다를진대, 굳이 문법이라는 틀에 매일 필요가 무엇일까? 그보다는 앞서서부터 차례로 번역해 내려가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문장의 전반부에 나온 글과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아귀가 맞지 않아 생경스러운 문장이 되기 일쑤다. 것처럼 문법을 무시하는 것은 반칙 아니냐고? 물론 반칙일 수도 있고 엇장수 마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글의 내용이 뒤바뀌지 않는 한 반칙을 썼건 엇장수 마음대로이건 우리글을 읽는 독자들이 더 편히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번역문학 작품이 치졸해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say와 tell의 번역에 유념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번역자들이 이 단어들을 그저 '말하다'로 옮기는데, 우리말에는 '말하다'와 의미는 같되 뉘앙스가 다른 말이 수십 가지는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화자가 신이 나서 호들갑을 떨 수도 있고, 못마땅해서 궁시렁 거릴 수도 있고, 시뻘겋게 달아서 뉘아세울 수도 있고, 은근 슬쩍 꼬드길 수도 있는 거니까.

번역자들이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작품 전체를 구조적인 견지에서 보고 등장인물들의 면면이 여실히 드러나 보이도록 그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I do my best"라는 아주 간단한 문장을 들어보자. 이 문장만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옮긴 글은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다. 그러나 화자가 무지한 하녀라고 한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때의 번역은 마땅히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요"라든가 "죽을 똥 다 썼는데요"가 옳을 것이다. 또 화자가 깡패

나 부랑자일 경우 "X뺱이 칠만큼 쳤어!"라고 해서 안 될 이 유는 무엇인가?

때로는 똑같은 번역이 오역일 수도 있고 오역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긴다. 예를 들어 "We made upstairs"라는 문장을 단어 뜻 그대로 "우리는 2층을 만들었다"라고 번역한다면 당연히 틀린 번역이다. 원문의 뜻은 "우리는 배꼽 맞추었다(번역이 너무 난했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성동 님의 <만다라> 끝부분에서, 병 속의 새를 찾던 스님이 마침내 파계하는 모습을 그린 "우리는 2층을 만들었다"라는 문장이 마음에 짝 와 닿아서 "우리는 2층을 만들었다"라고 번역했다면 그것은 매우 훌륭한 번역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자면 번역, 그 중에서도 특히 문학작품의 번역은 아무나 손댈 만한 일이 결코 아니다. 번역을 하기에 앞서 완벽에 가까운 외국어 해독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말을 구사하는 능력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번역 현실은 어떠한가? 초등학교 작문 같은 벽돌쌓기식 문장, 동일한 주어와 서술어의 반복, 생경스럽기 그지없는 말투,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 보아도 오역임이 분명한 책임도 성의도 없는 번역들이 난무하고 있다. 물론 <번역자는 곧 반역자>라는 이탈리아의 옛 속담처럼 번역이 원작과 완전히 같은 것일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날림 번역, 엉터리 번역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